

“당분간 0.25%p 인상기조 유지”

이창용 한은 총재 “연말 기준금리 2.75~3.0% 합리적... 지금 빅스텝 고려 안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사상 첫 네 차례 연속 인상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 하방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가 고착화 되는 상황을 막는 게 더 우선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5~6%대의 높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현재의 물가와 성장 전망경로 하에서는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이 예상하고 있는 경로를 벗어나 충격이 오면 원칙적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7월 예상했던 전망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말 2.75~3.0% 기준금리가 바람직하다는 시장 전망은 합리적”이라며 “다만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따라 통화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이 조금 낮아져더라도 5%대의 높은 물가가 높은 수준이 생

각보다 오래되면 물가를 우선적으로 잡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운영에 도움이 된다”며 “물가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안정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내년도에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년에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여러 가지 국제 상황아래서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내년도에도 한은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물가가 더 높게 지속되면 인상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면서 “반면 예상하는 것보다 경기가 훨씬 더 나빠지면 당연히 물가도 낮아지고 다른 새로운 기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농협 조합감사위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박태선)는 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관)과 함께 25일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농협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2011년 처음 시작으로 올해 12년째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평소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영농 및 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 등에 대한 개별상담방식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박태선 위원장은 “올해 취임 이후 소통이 화두인 시점에서 중앙회와 전국 농·축협과의 원활한 소통에 초점을 맞춰 지도경영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축협이 관내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농업인·조합원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농협은 전북검사국과 합동으로 민중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품안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추석명절 안전한 먹거리 공급 위해

전북농협-전북검사국, 식품안전 특별 지도점검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북검사국(국장 최한호)과 합동으로 민중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품안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농협은 지난 8일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를 식품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240여개 계통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현장점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지역본부 특별상황실 운영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5일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 하나로마트 북

부점을 찾아 농산물 매대를 둘러보고 △원산지 표시 적정성 △유류통기한 경과 여부 △무늬가·무늬고 제품 판매 △식품위생 관리 여부 등 식품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무더위와 폭우로 인한 농산물 신선도 저하 원산지 미표시, 수입농산물 범람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더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전북농협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남원농협, 조합원에

배추모종 무상 공급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3일과 5일 사이 파종한 배추모종 7,500여판(6,000만원 상당)을 오는 28일까지 전 조합원에게 1인당 1판(105구)씩 무상공급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실시한 조합원의 영농편의를 높여주기 위한 실익 사업으로,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박기열 남원농협조합장은 “앞으로도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사업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농협은 최근 농기계 순회 센터 봉사활동과 영농철 농촌 일손 돕기, 로컬푸드 체험 및 반찬나눔 행사 등 농업인의 실익증대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동군산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디오션점 개점

군산 구암동 위치... '원스톱 쇼핑' 가능

동군산농협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하나로마트·로컬푸드 디오션점을 개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근 조합장 및 임원, 대의원 등 동군산농협 내부 조직장을 비롯해 김일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장, 관내 외 농축협 조합장, 농협 전북본부 임직원 등이 함께하며 우리 농산물 판매 확대를 열망했다.

군산 구암동(구암로 110)에 위치한 디오션점은 부지면적 627㎡, 건축면적 182㎡의 지상 1층 규모의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로 구성돼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

또 284㎡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300여 명의 농가가 참여해 350여

개 품목의 농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들과 신역세권이 가까운 만큼 빠른 소비층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은 “전북농협에서도 예산과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출하 농가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영근 조합장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는 지역 중심의 유통체계를 만들어 시민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모범적인 매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신동진쌀 4차 특별 할인

전북농협, 농협김치와 함께 라이브커머스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북지역 대표 브랜드 신동진쌀과 한국농협김치를 28일 오후3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할인 판매한다.

4회째 진행되고 있는 이날 방송에서는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으로 좋은 쌀만 만든다는 햇빛의 바람을 담은 계화 간직지 쌀과 풍부한 일조량과 기름진 토양으로 알려진 김제광야의 쌀로, 굵고 탱탱한 쌀알이 타품종과 혼합도 불가하며 수분함량이 낮아 밥을 지으면 찰기가 살아있어 뛰어난 식감을 자랑한다.

라이브커머스로 함께 할인 판매되는 한국농협김치는 진안 부귀농민들과 계약 재배하여 수매한 농산물로만 제품을 생산하며 토굴형 저온저장법으로 옛 조상들의 지혜를 담은 전통 김치이다. 상품은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당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할인



2022.08.26(금) 09:00~23:00 신동진쌀 4차 특별 할인 행사 진행 중입니다. 2022년 8월 26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동진쌀과 한국농협김치를 28일 오후 3시부터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할인 판매합니다.

된 가격에 무료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생방송은 오후 3시 진행 예정입니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홍보가 되어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로 알려지길 바란다”며 “전북농협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농업인에게는 판로개척과 소득증대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축산 발전, 여성의 역할 중요”

무진장축협, 여성 핵심리더 교육 실시

무진장축산농협(조합장 송재근)은 지난 24일 무진장축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무진장지역 여성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리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송재근 조합장을 비롯하여 전북생명 축공 조진환 차장의 강의로 치매보험과 심전도(NT)재해보험을 교육했다.

송재근 조합장은 교육을 통해 “지역 축산 발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무진장축협에서 여성 핵심리더에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무진장축협은 수년간 흑자경영으로 무진장 축산농가의 소리를 대변하며,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하

고 있다. 무진장 지역 여성 핵심리더는 오전에 보험교육을 마치고 마이산 산행을 가졌고, 산행 이후 단합대회를 가져 무진장 지역 여성조합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다졌다.

무진장축협 여성 핵심리더 길영애 회장은 “여성조합원의 단합과 화합이 무진장축협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며 “여성이 축산업에 대해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주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재근 조합장은 “축산인이 사랑받고 축산인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무진장축협에서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축산농협은 지난 24일 무진장축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무진장지역 여성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리더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마이산 산행도 가졌다

전북은행, 'JB 다정다감 행복한 집 제2호' 조성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24일 군산시 성산면 소재 다문화가정에서 'JB 다정다감 행복한 집 제2호'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인 타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노후화된 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시 정영재 복지환경국장, 군산시 가족센터 천은영 센터장, 전북은행 김경진 부행장, 최중구 수송동지점장, 정영민 군산시청 영업점장 등이 참석했다.

군산사와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추천한 지원 대상 가정은 오래된 벽지와 전등 등으로 어두운 집안 분위기 개선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낡은 물품 등으로 학습 및 생활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은행은 집안 곳곳 누수로 얼룩진 벽을 새롭게 도배하고 전등과 전구를 교체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장학금 자녀와 할머니가 같이 쓰던 방을 정리 후 책상, 책장, 옷장, 침대 등을 지원해 온전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만들었다.

전북은행 김경진 부행장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